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은혜로 택하심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증거했다. 9장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했고 이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과 은혜에 근거하였음을 증거했다.

[롬 9: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 하였다. 사람이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친척들이나 같은 민족에 대해 더 친근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히 먼저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 얻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 매우 큰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養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온갖 특권을 누린 특별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영광의 표들과 언약들과 율법과, 성막과 성전 예배 즉 제사 제도와, 약속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적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나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던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었다.

[6-9절] 또한(그러나)(NASB)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

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그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이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여섯 명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은(창 25:1-6)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은 자손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오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만 언약의 자손들로 간주되었다.

[10-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는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아직도 낳지도 않았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됨이 육신의 혈통이나 그들의 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택으로 되는 것을 증거한다. 사람의 행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사 64:6). 사람의 구원은 그의 선행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즉 그의 은혜의 선택에 있다(딤후 1:9).

[14-16절]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출 33:19) 하셨으니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므로 구원하실 자를 임의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그가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확증된다. 구원은 사람의 소원이나 노력으로

가 아니고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17-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출 9:16)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강팍케도 하신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19-24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느뇨 하리니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말대답하시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으시다. 실상, 악인의 멸망은 그 자신의 죄와 직접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또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홀로 얻은 것뿐이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저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홀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 죄사함과 의를 주셨다.

[25-29절]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호 2:23).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호 1:10)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사 10:22)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펼하시니 끝내시리라(이는 그가 그 일을 이루시고 의로 그것을 속히 이루실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속히 이루실 것임이니라(전통본문)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사 1:9)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홀로 남은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으며 오직 그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30-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 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의의(전통본문)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전통본문)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행위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멸망할 자들이다.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두셨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율법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형제와 골육 친척의 구원을 원하였다.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는 주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족들을 향해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둘째로, 사람의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16절).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신다(18절). 죄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공홀의 선택으로 말미암는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것이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음을 거절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다(30-32절).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

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함이라.”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주일오후설교

바로 의 첫 반응

[출 32:1-5]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役事)[일을] 쉬게 하나냐? 가서 너희의 역사(노동)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노동)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를 접견하여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이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거절하였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직접 나타내심으로 받은 말씀, 즉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받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쉬게 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

[6-9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감독들과 패장들)(작업반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쪼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자 하니니 그 사람들의 고역(일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패장’ 즉 작업반장들은 감독들 밑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가리킨다(14, 15, 19절). 바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고 헛된 말로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애굽 왕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10-18절] 간역자들(감독들과 패장들)(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는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정량)를 바칠지니라.

곡초 그루터기는 곡초를 베고 남은 밀등치와 뿌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량은 더 많아졌고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구타도 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19-23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작업반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악취)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와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대.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당황했겠지만, 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과정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떠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 얻어(행 2:4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불경건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 불경건과 죄로부터 구

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핵심 진리이다. 우리는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3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는 제사 행위를 게으르고 말했지만,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를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셋째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에는 커녕 더욱 확대했다. 바로는 사탄의 표상이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죄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한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5:19), 바울도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딤후 3:12).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잘 참고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수요일 설교 | 애굽과 구스가 사로잡힐 것

[사 20:1] 앗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앗수르 왕 사르곤은 사르곤 2세로서 주전 722년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켰던 앗수르 왕 실만네셀 5세(주전 727-722)의 왕위를 빼앗고 그를 이어 왕이 된 자이었다. 그는 군대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어 그것을 쳐서 취하였다. 그것은 주전 711년이었다.

[2-4절]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같지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모פת) 징조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스돗이 앗수르에게 점령된 때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겹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고 명하였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앗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다. ‘3년 동안’이라는 말은 3년간의 계속적인 경고와 교훈의 뜻으로 보인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는 것은 애굽과 구스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교훈이 될 것이다.

[5-6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본문의 ‘그들’과 ‘이 해변 거민’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애굽 나라와 구스 나라를 바라고 의지하며 자랑하였다. 그들은 애굽 나라를 믿었고,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애굽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였다(사 31:1).

그러나 이제 애굽 나라와 구스 나라가 앗수르 나라에게 패망할 때 그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며 피할 곳을 몰라 당황해 할 것이다. 그들은 늦게나마 애굽 나라와 구스 나라가 참으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사 30:3).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말았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노여워하신다.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여워하시고, 우리는 어느 날 그것들 때문에 크게 낙망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을 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큰 충격과 낙망이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자기 백성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의지하는 것들을 없애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져야 했던 진리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하는 존재이었다. 이제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은 인생의 정로(正路)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